

영향예보로 가족과 이웃을 지킵니다

- 기상청, '2023년 영향예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0월 31일(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2023년 영향예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등 10개 팀에 대해 시상하였다.

영향예보란 폭염·한파 등 같은 기온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날씨의 위험수준을 알려주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요령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이를 위해 신호등 색깔로 지도 위에 위험단계를 표현하고, 보건, 산업 등 분야별로 대응요령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상청이 2019년부터 폭염과 한파 영향예보를 연차적으로 시행한 이래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그간에 폭염·한파 피해 경감을 위한 영향예보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방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경진대회는 폭염·한파 영향예보를 이용한 방재 활용 성과 부문과 활용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기획) 부문의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되었다. 관계기관 취약계층 관리자, 민간업체 안전관리자,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공모하였고, 1차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각 5팀이 선발되어 총 10팀이 본선에서 겨루었다.

최우수상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자녀), 지자체가 함께 영향예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창녕시니어클럽의 '폭염아 꼼짝마! 어르신의 안전을 책임 집니다!'가 선정되었으며, 300만 원의 부상이 함께 주어졌다. 우수상은 방재 활용 성과 부문에서는 '어르신 생명 구하는 응급안전안심 플러스(PLUS) 기상청 영향예보'가, 아이디어 제안 부문에서는 '엄마, 아빠 보글 보글 끓는 지구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가 선정되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대회의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영향예보를 활용하여 실효적으로 방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실생활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3년 영향예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결과
 2. 기념사진

담당 부서	예보국 영향예보지원팀	책임자	팀 장	박성찬 (02-2181-0265)
		담당자	사무관	이현숙 (02-2181-0268)



붙임1**2023년 영향예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결과**

구분	제목 (발표자)
최우수상	폭염아 꼼짝마!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창녕시니어클럽 팀, 김태완)
우수상	어르신 생명을 구하는 응급안전안심 PLUS 기상청 영향예보 (응급 PLUS 팀, 손승식)
	엄마, 아빠 보글보글 끓는 지구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Earth, 얼썩! 팀, 이현화)
장려상	기상 모니터링을 통한 폭염위험정보 표출 대국민서비스 제공 (영천시청 정책기획실 팀, 김명미)
	영향예보-온열/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 통합플랫폼 (메디웨더 팀, 이성환)

붙임2**기념사진****< 단체 기념사진 >**